어린이 책꽂이

▲금이 간 거울=금이 하나씩 늘어가는 이상한 거울, 자꾸만 나타나는 긴 머리카락 등 짜릿한 긴장과 공포를 주는 다섯편의 동화가 수록된 동화집. 마음을 여는데 서투른 어린이들이 자신과 상대방을 감싸 안고 이해하게 되는 모습이 독특한 소재를 통해 그려졌다. 〈창비·8천500원〉

▲투비투비를 지켜라=눈요정 투비투비를 하늘나라로 돌려 보내기 위해 인간의 환경오염으로 탄생한 괴물과 주인공 푸름의 모험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판타지 환경동화. 과연 푸름이와 타라는 괴물들을 물리치고 요정 투비투비를 무사히 하늘나라로 돌려 보낼 수 있을까. 〈웅진주니어·8천원〉

▲개미와 베짱이 경제일기=어린이들에게 잘 알려진 이솝우화를 통해 삶의 지혜와 경제마인드를 심어준다. 돈 보다 신용이 더 중요함을 일깨우는 '양치기 소년'를 비롯 '황금알을 낳는 거위','말과 당나귀' 등이 수록돼 있다. 〈푸른돛·8천원〉

▲위대한 평화의 심부름꾼 간디=어린시절 겁많고 부끄러움을 잘 타던 소년 간디가 비폭력 저항운동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명언과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일화 등이 소개돼 있다. 〈데미·8천500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물이 아니라 주스라면 어떨까?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야기가 섬세한 그림과 함께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토토북·8천500원〉

대중가요 통해 시대像 들여다보기

번지없는 주막 이동순 지음

'듣는 사람의 가슴을 토막토막 저미는 콧소리'의 소유자인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미성의 가수'로 불렸던 남인수의 '애수의 소야곡', '불세출의 저음 가수'로 명성이 자자했던'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불려온 '노래'에는 그 시대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 특히 '대중가요'는 일제시대, 전쟁, 개발독재 시대 등을 통과해 온 평범한 한국인들의 삶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왔다.

최근에 출간된 '번지 없는 주막-한국 가요사의 잃어버린 번지를 찾아서'는 서민들과 함께 호흡했던 노래들이 점차 사라져 가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 한 연구자가 풀어놓은 재미있는 '한국 가요사'로 노래를 통해 시대와 삶의 풍경까지도 함께 들여다 본 책이다.

예전에도 이런 류의 책이 없지 않았지만 이 책이 더욱 재미있게 읽히는 건 바로 저자 덕이다. 단순한 연구자의 입장이 아닌, 우리 가요를 진정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이라는 게 글 곳곳에서 묻어 나기 때문이다.

영남대 국문과 교수인 저자 이동순씨는 스스로 '전생에 만주와 시베리아 등지를 전전해 다니는 유랑극단의 막간 가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지인들은 그를 '노래를 밤새도록 수백곡이나 부를 수 있는 사람' '노래를 3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기인'이라 부른다.

저자는 대구 MBC에서 '이동순의 재미있는 가요 이야기'를 진행하고 '한국의 대중가요와 생활사'강좌를 개설했다. 또 남인수 팬클럽 회원이고, 아코디언 연주에도 일가견이 있다.

5부로 구성된 책 가운데 가장 재미있게 읽히는 부분은 유명 가수들의 삶을 다룬 3부 '한국 가요사의 별'과 4부 '한국인이 즐겨 부르는 노래들'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별의 부산 정거장' 등 1천여곡을 취입한 남인수의 노래는 무언가에 시달려 심신이 몹시 피로하거나 힘든 저녁에 들어야 제맛이다. 여복이 많아 '여(女)인수', 재테크에도 능해 '돈인수'로도 불렸던 남인수는 폐결핵으로 고생했지만 죽기 석달 전까지 무대에 섰던 진정한 예술인이었다.

남인수·이난영 등 활동상·비화 다뤄

김지하씨와 노래경연 등 에피소드도

8남매의 어머니였던 이난영이 인기절정일 때 이웃집에서 살았다는 한 노인에게서 "동네아이 중 입성이 가장 남루한 아이에게 네 어머니가 누구냐 부르면 틀림없는 이난영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자는 이 무대, 저 무대 불려 다니느라 집안일을 돌볼틈 없었던 그녀의 고단했던 삶을 위로한다.

저자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한국인이 즐겨 부르는 노래 20곡을 선정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으나 또 다시 일터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던 쓰라림이 담긴 '비 나리는 고모령', 전란 후 부산의 임시 수도를 떠나는 심정을 그린 '이별의 부산 정거장', 6·25 중 귀여운 딸을 차가운 땅 속에 묻어야 했던 이의 애닮은 심정이 담긴 '단장의 미아리 고개' 등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5부 '나의 대중 가요 편력기'에는 '엄청난 레퍼토리의 저장고'였던 시인 김지하가 가수 조용필과 노래 시합에서 당당히 이긴 후 저자를 찾아왔다 두손들고 돌아간 사연 등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도서출판 선·2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복수〉 〈남인수〉 〈배 호〉 〈이난영〉 〈이미자〉

명작에게 길을 묻다 송정림 지음

KBS 1FM의 아침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차분한 일상의 시작을 원하는 청취자들이 즐겨 찾는 클래식음악 방송이다. 오전 8시40분 무렵이면 '명작에게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코너가 시작된다.

이 코너는 명작 속 명구들을 통해 지친 현대인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위로받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일까. 클래식 방송 치고는 마니아층을 형성할 정도의 인기를 얻었고, 마침내 코너에 소개됐던 글들이 모여 같은 제목의 책으로 출간됐다. 글을 쓴 방송작가 송정림씨는 책에서 명작 속에 숨겨 있는 생의 위대한 비밀을 특유의 따뜻한 문체로 풀어냈다.

저자는 살아야 하는 이유, 견뎌야 하는 이유, 사랑해야 하는 이유 등 끊임없이 떠오르는 삶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명작의 해석과 함께 들려준다. 책 속 삽화는 저자의 고등학생 아들 유재형군이 그린 것이어서 더 흥미롭다. 〈갤리온·1만3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따뜻한 문체로 풀어 낸 명작속 삶의 비밀

어머니 고건 외 지음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머니'라는 이름은 우리를 숙연케 한다. 자식에게는 모든 것을 다 내주고도 또 희생을 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사회적 명사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어머니'는 명사 28명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드리는 감사장이다. 아련한 어머니의 추억을 더듬은 이들은 김주현(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박근혜(전 한나라당 대표), 송영길(국회의원), 이다도시(방송인), 이낙연(국회의원), 차민수(프로 겜블러) 등.

고시준비하는 아들을 뒷바라지했던 고건 전 총리의 검소한 어머니, 노동운동을 하며 공안당국의 감시를 피해 좁처럽 집에 오지 않던 아들을 위해 20년 동안 노동관련 기사를 스크랩했던 노회찬 의원의 어머니, 19살의 나이 차로 오히려 친구처럼 느껴지는 이다도시의 어머니는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매일경제신문사·1만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28명의 명사가 어머니께 드리는 감사장

내 인생 한권의 책

우메다 모치오 '웹 진화론'

일찍이 빌 게이츠는 1990년대가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의 시대였다면, 2000년대는 속도(velocity)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최근 인터넷이 우리의 일상을 급속하게 바꿔가는 걸 보면, 그의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십분 실감하게 만들고도 남는다.

최근 들어서는 매스 미디어가 아닌 퍼스널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네티즌 상호간의 무차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블로그의 급속한 보급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의 IT 전문가인 우메다 모치오(梅田望夫)의 '웹 진화론'(재인 펴냄)은 인터넷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저작이다. 저자에 의하면 IT기술의 발달은 하드웨어 가격과 네트워크 연결 비용의 하락을 가져오고 '오픈 소스(open source)'의 등장 덕택에 누구나 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즉, Web 2.0 기반의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의 전파·확산에 있어 시차(時差)가 존재하지 않으며, 구글(Google)과 같이 지식세계를 재편하는 회사가 강자로 부각된다. 저자는 이들 기업들이 가상세계인 정보 발전소에서 작은 시장을 끊임없이 끌어 모아 이익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부의 분배 메카니즘을 창출하고

'속도의 시대' 인간의 역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웹 환경의 진화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스피드와 파워가 생겨나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참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크나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경우 주요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다수 의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직접 민주주의'도 가까운 장래에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나는 저자가 제시하는 인터넷 세상의 급속한 진화에 놀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같은 세상에서 인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문에 잠기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멀티미디어가 발달할수록 마셜 맥루한이 미디어에 대해 내린 정의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맥루한은 모든 미디어를 인간의 신체 기관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 전화기는 귀의 연장이요, 텔레비전은 인간의 눈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터넷은 단순히 기술이 아닌 인간의 꿈과 비전의 연장일지도 모른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은 정보기술(IT)의 발달과 이에 따른 인프라의 확충, 다시 말하여 전자정부로 대변되는 시스템 혁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새해부터 온라인 업무관리 시스템이 모든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모든 행정 업무가 인터넷상에서 원 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는 가히 눈부실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이버 공간의 확대 못지않게, 이를 집행하는 정부와 행정 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 이해와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진정한 전자정부 시대가 꽃필 수 있을 것이다.

정 남 준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장〉